

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8. 11. 23. / (총 5매)	담당부서	복지정책과
과 장	배 금 주	전 화	044-202-3020
담 당 자	정 명 현		044-202-3022

“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” 국가자격증 신설

- 보건복지부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-

- ◇ '1983년 5월 사회복지사 1. 2. 3급 제도 도입이후, 35년 만에 정신건강, 의료,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, 학교사회복지사를 신설.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
- 이는 국민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정신건강을 증진하고,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등 위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수요에 대응
- ◇ 특히,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추진하는 “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(커뮤니티케어)”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원초기부터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며 돌봄통합 창구 및 보건·의료, 돌봄·복지, 정착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‘사회복지사업법’ 개정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

- '1983년 사회복지사 1·2·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, 의료,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, 의료사회복지사,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.
-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,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.
-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.
-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,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, 지역사회 자원 개발,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, 아동학대,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특히,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‘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(커뮤니티케어)’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.
-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,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,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.
-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으로 정하였다.
-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, 2급이었으나,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붙임

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

□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(Community Care)

- 케어(care)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 (community)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< 최종 확정된 정의인지 다시 확인 요함 >

* 케어(care) : 좁은 의미의 돌봄 뿐 아니라 주거·복지·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

□ 돌봄통합창구의 서비스 종합 안내 기능 개념도(안)

